

AI 기반 학부 중한번역 수업의 학습자 번역 의사결정과 평가적 판단: 언어화된 판단과 포스트에디팅 결과의 대응을 중심으로

김영인(영남대학교)

1. 서론

번역교육은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그 출발점의 전환을 맞았다. 학습자는 더 이상 빈 화면에서만 번역을 시작하지 않고, 상당히 유창한 AI 초벌번역문을 접한 뒤 원문과 대조하여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수정할지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AI 번역문이 부자연스러울 때보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읽힐 때 더 커진다. 유창한 문장 안에도 원문 의미의 약화, 정보 누락, 과잉 의역, 문체 불일치, 문화어의 처리 및 사실 정보 문제 등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기반 번역교육의 핵심은 AI 번역문을 비판적으로 읽고 수정하는 포스트에디팅(Post-editing, 이하 PE)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특히 중한 신문 텍스트 번역에서는 원문의 정보와 논리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어 기사문으로서의 자연스러움, 문체 적합성, 독자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PE는 단순한 표현 윤문이 아니라, 학습자가 AI의 초벌번역문에서 문제를 식별하고 수정하거나 유지하는 기준을 선택하는 번역 의사결정(decision-making in translation)의 과정이다.¹⁾

그러나 PE 결과물만으로는 학습자가 무엇을 문제로 인식했고 왜 특정 표현을 수정하거나 유지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인식된 문제가 실제 수정으로 이어졌더라도, 수정 결과가 원문 의미와 정보를 보존하면서 장르 문체와 도착어 유창성 등의 번역 품질 평가 기준(translation quality criteria)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²⁾ 자연스러움을 높이려는 수정이 의미 범위를 바꾸거나, 독자 이해를 위한 보완이 원문의 정보량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번역 의사결정과 수정 결과를 평가 기준에 비추어 재검토하는 평가적 판단(evaluative judgement)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³⁾

본 연구는 국내 4년제 대학의 AI 기반 중한번역 수업에서 산출된 학부 학습자의 PE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분석 자료는 16명의 학습자가 5개 신문 텍스트에 대해 제출한 총 80건의 과제 세트로, 각 자료는 AI 초벌 번역 프롬프트, AI 초벌번역문, PE 결과물, 수정 근거 분석문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이 네 요소를 대응시켜 다음의 문제를 분석한다.

- (1) 학부 학습자는 AI 초벌번역문에서 어떤 문제를 인식하며, 실제 PE에서는 어떠한 수정 양상이 나타나는가?
- (2) 학습자가 AI 초벌번역문에 대해 언어화한 평가적 판단은 실제 PE에 어떻게 반영되며, 수정 결과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1)에 대해서는 학습자가 분석문에 명시한 문제 인식(A범주)과 AI 초벌번역문-PE 대조에서 확인되는 실제 수정 행위(B범주)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연구문제 (2)에 대해서는 언어화된 평가적 판단과 PE 결과의 대응관계(C범주)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문제 인식과 수정·유지 결정뿐 아니라, 수정 결과를 평가 기준에 비추어 재검토하는 과정이 PE 교육에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번역을 의사결정 과정으로 파악한 빌스(Wilss, 1994)의 논의와 본 연구의 정의는 2.3에서 제시한다.

2) 본 연구의 번역 품질 평가 기준의 구체적 항목과 구성 근거는 2.3에서 제시한다.

3) 타이 등(Tai et al., 2018)은 평가적 판단을 자신과 타인의 작업물의 질에 관해 결정을 내리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의 적용 범위는 2.3에서 제시한다.

2.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배경

2.1 AI 번역과 포스트에디팅 교육

PE는 기계번역이나 AI 번역 시스템이 산출한 번역문을 인간 번역자가 검토·수정하여 목적에 맞게 개선하는 활동으로(O'Brien, 2021, p. 177),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2017)의 완전 포스트에디팅 기준을 정리한 저우 등(Zou et al., 2022, pp. 72-73)에 따르면 이는 기계번역 산출물에 대한 인간의 전문적 수정 과정으로 규정된다.⁴⁾ 따라서 PE는 단순한 윤문이나 맞춤법 교정과 구별되며, 교육 맥락에서는 학습자가 AI 번역문을 원문과 대조하면서 의미 정확성, 정보 보존, 문체 적합성, 용어 일관성, 독자 수용성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PE는 번역 품질을 확보하는 활동인 동시에 시간적·인지적·기술적 노력을 수반하며(Koponen, 2016, p. 139),⁵⁾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어떤 표현을 고쳤는가’뿐만 아니라 ‘무엇을 문제로 보고 어떤 기준으로 그 수정을 선택했는가’이다.

2.2 국내 학습자 PE 연구의 두 흐름과 본 연구의 위치

국내에서 학습자의 PE를 다룬 연구는 크게 두 흐름으로 축적되어 왔다. 하나는 기계번역·AI 번역 산출물과 PE 결과물에 나타난 오류 유형과 수정 양상을 분석하는 산출물 중심 연구로(김자경, 2020; 김혜림, 2024 등), AI 번역문이 유창해도 오류가 잔존함을 구체적으로 밝혀 왔다. 다른 하나는 설문과 인터뷰 등을 통해 학습자가 AI 번역과 PE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하는 인식 중심 연구이다(강수정, 2025; 김영인, 2026a; 지윤주 등, 2023; 최진실, 2024 등).

4) 저우 등(Zou et al., 2022, pp. 72-73)이 ISO 18587:2017에 따라 제시한 완전 포스트에디팅(full post-editing) 기준에는 정보의 추가·누락 방지, 부적절한 내용의 수정, 의미가 부정확하거나 불명확한 문장의 재구성, 문법·통사·의미의 정확성, 철자와 문장부호의 준수, 텍스트 유형에 적합한 문체와 형식의 적용 등이 포함된다.

5) 코포넨(Koponen, 2016)은 PE 노력(post-editing effort)이 시간, 인지적 부담, 기술적 수정량 등 여러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음을 정리하였다.

두 흐름은 각각 ‘무엇이 어떻게 수정되었는가’와 ‘학습자가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밝혀 왔지만, 학습자가 문제를 식별하고 수정 또는 유지의 근거를 형성하는 과정과 그 판단이 실제 PE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함께 대응시킨 연구는 드물다. 산출물 중심 연구는 수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만 결정 근거에 접근하기 어렵고, 인식 중심 연구는 학습자의 인식이 실제 수정 행위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최근 번역교육 담론이 AI 시대 학습자의 판단 주체성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고려하면(김민영, 2026), 학습자 PE 연구 또한 산출물 분석과 인식 조사의 이분법을 넘어, 학습자가 언어화한 판단과 실제 PE 결과의 관계를 동일 사례 안에서 대응시켜 분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⁶⁾

2.3 번역 의사결정과 평가적 판단

번역을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빌스(1994)에서 체계적으로 논의되었다. 빌스는 번역 의사결정(decision-making in translation)을 정보처리의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번역자의 인지체계와 언어적·지시적·사회문화적·상황적 지식, 과제 명세, 텍스트 유형별 문제 공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번역자가 내부적으로 문제를 표상하고 이후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AI 기반 PE 교육에서 학습자의 번역 의사결정은 번역 목적과 분리될 수 없다. 기능주의 번역이론은 번역을 특정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로 보고, 번역자가 도착어 독자, 번역 목적, 텍스트 기능, 사용 맥락을 고려하여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고 본다(Nord, 1997/2018). AI 초벌번역문이 문법적으로 적법하고 표면적으로 자연스럽더라도 주어진 목적·독자·장르에 부합하지 않으면 PE의 대상이 된다. 또한 PACTE 그룹(2005, p. 610)은 전략적 능력이 번역 과정의 계획과 평가, 문제 식별 및 해결 절차의 적용을 통제한다고 설명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PE는 언어적 오류를 고치는 활동을 넘어, 문제를 식별하고 대안을 비교하여 목적에 맞는 해결책을 선택하는 번역 의사결

6) 김영인(2026b)에서는 학습자의 직접 번역을 기반으로 한 AI 보조수정 활동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번역 난점 인식이 프롬프트 작성과 최종 번역 조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정의 전략적 과정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루는 평가적 판단(evaluative judgement)은 학습자가 AI 번역문과 자신의 수정안을 명시적 평가 기준에 비추어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는 고등교육의 평가 연구에서 제안된 개념으로, 타이 등(2018, p. 471)은 평가적 판단을 자신과 타인의 작업물의 질에 관해 결정을 내리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는 이 개념을 번역교육의 PE 맥락에 적용하여, 수업에서 제시된 명시적 기준을 바탕으로 수정·유지의 타당성과 수정 결과를 재검토하는 능력으로 본다. 특히 표면적으로 유창한 AI 번역문은 자연스러움을만 기준으로 수정할 경우 원문의 의미 범위나 정보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의 수정 근거 분석문은 학습자가 무엇을 문제로 인식하고 어떤 대안을 검토했으며 왜 특정 표현을 수정 또는 유지했는지를 언어화한 자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석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범위에서 평가적 판단을 분석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번역 의사결정과 평가적 판단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번역 의사결정은 문제 지점을 식별하고 수정·유지·추가·삭제 중 어떤 행위를 선택할지를 정하는 과정이다. 평가적 판단은 그 선택 전후의 번역안을 평가 기준에 비추어 비교하고, 선택의 타당성과 결과를 재검토하는 과정이다. 이에 5개 신문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AI 초번역문, PE 결과물, 수정 근거 분석문을 대응시켜 문제 인식과 수정 행위, 그리고 판단과 결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본 연구가 학습자의 판단과 수정 결과를 대조하는 데 적용한 번역 품질 평가 기준(이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⁷⁾

-
- 7) 해당 평가 기준은 본 연구의 C범주 분석에서 원문, AI 초번역문, 학습자의 판단 근거, 최종 PE를 대응시켜 수정 전후의 차이를 검토하는 데 활용하였다. 즉, C범주는 이들 기준에 따라 학습자의 수행도나 평가적 판단 능력의 수준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언어화된 판단과 PE 결과의 대응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또한 4.3의 보조 분석에서는 이 가운데 원문과 PE의 직접 대조를 통해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미·정보 관련 차이만을 제한적으로 검토하였다. A, B범주는 학습자의 문제 인식과 실제 수정 행위를 유형화한 것으로, 이 평가 기준을 직접 적용하여 분류한 것은 아니다.

- ① 원문 의미 보존
- ② 정보 정확성
- ③ 용어 일관성
- ④ 도착어 유창성
- ⑤ 장르 문체 적합성
- ⑥ 독자 수용성

원문 의미 보존은 의미 범위와 인과·대조·병렬 등의 논리 관계 유지, 정보 정확성은 원문 정보의 누락·추가 방지와 사실 정보의 정확성을 포함한다. 용어 일관성은 동일 용어·고유명사 등의 일관된 번역을, 도착어 유창성은 문법적 완결성이나 표면적 가독성에 그치지 않고, 한국어 어순·연어·호응의 자연스러움과 번역투 여부를 포함한 도착어 표현의 질을 가리킨다. 장르 문체 적합성은 신문 텍스트의 어조·문장 구성·제목 방식에 대한 적합성을, 독자 수용성은 문화어·고유명사·배경정보를 포함한 도착어 독자의 이해 가능성을 가리킨다.

이 기준은 MQM의 주요 품질 차원(Lommel et al., 2014; MQM Council, n.d.), 완전 포스트에디팅의 요건(ISO, 2017; Zou et al., 2022), 기능주의 번역 이론의 관점(Nord, 1997/2018), 본 수업의 PE 가이드라인(3.1 참조)을 종합하여 구성하였다.⁸⁾ 연구자의 분석은 개별 번역안을 단일한 정답에 비추어 등급화하거나 우열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 전후에 각 평가 기준과 관련된 차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3.3 참조).

8) MQM의 정확성(Accuracy)은 본 연구의 원문 의미 보존과 정보 정확성에, 용어(Terminology)는 용어 일관성에, 언어적 관습(Linguistic conventions)은 도착어 유창성에, 문체(Style)는 장르 문체 적합성에, 독자 적합성(Audience appropriateness)은 독자 수용성에 각각 대응한다. 다만 본 연구는 MQM 오류 유형이나 심각도 점수를 직접 적용하지 않고, 해당 차원을 수업 및 분석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차원 명칭은 MQM Council이 관리하는 현행 분류(MQM Council, n.d.)를 따르며, 언어적 관습(Linguistic conventions)은 로멜 등(Lommel et al., 2014)의 유창성(Fluency) 차원에 해당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및 수업 맥락

본 연구는 국내 4년제 대학 2026년 1학기 ‘AI 중한번역 연습’ 수업에서 산출된 학부 학습자의 AI 초벌번역문 PE 활동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⁹⁾ 수강생은 중국어 학습 기간이 대체로 2~3년에 이르는 학부 3·4학년 학생으로, 모두 한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학습자이다. 본 수업의 활동은 중국어 신문 텍스트의 원문 이해를 바탕으로 AI 번역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는 기초적 번역 의사결정 능력을 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수업은 원문 이해를 AI 활용보다 앞세우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학습자는 AI 초벌번역문을 생성하기 전에 해당 텍스트의 주요 어휘와 배경지식을 학습하고, 원문 이해와 시역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후 기능주의 번역이론과 프롬프트 작성 원리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교수자가 제시하는 프롬프트 예시를 참고하였으며,¹⁰⁾ 각자 판단하여 작성한 프롬프트를 활용하여 AI 초벌번역문을 생성하였다.

AI 초벌번역 이후에는 조별 토론을 통해 AI 번역문의 문제를 검토하고, 교수자가 제시한 PE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개별 PE를 수행하였다.¹¹⁾ 가이드라인은 AI 번역을 정답이 아닌 수정 대상인 초안으로 규정하고, AI 초벌번역 점검, PE 수행 중 점검, PE 완료 후 최종 점검의 세 단계로 구성되었

9) 동일 수업의 전체 수업 설계와 학습자 인식은 김영인(2026a)에서, 수업 내 또 다른 활동인 동일 주제의 난이도가 낮은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 직접 번역 기반 AI 보조수정 활동의 수행 양상은 김영인(2026b)에서 다룬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연구와 분석 대상을 달리하여, 중국 신문 원문 텍스트에 대한 AI 초벌번역 기반 PE 활동에서 산출된 자료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10) 이때 교수자가 제시한 프롬프트 예시에는 번역 방향, 텍스트 분야, 원문 장르, 번역 목적, 도착어 문체, 필수 용어, 문화어 처리 방식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항목은 학습자의 프롬프트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예시였으며, 학습자들의 항목별 포함 여부나 그 효과를 별도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11) PE 가이드라인은 김혜림(2024)을 참고하여 중한 기계번역 PE 교육에서 강조되어 온 원문 대조, 의미 정확성, 정보 보존, 문체 적합성, 독자 고려, 불필요한 수정의 제한 원칙을 수업 맥락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다. 초벌번역 점검 단계에서는 의미 정확성, 정보의 누락·추가, 인과·대조·병렬 등의 논리 관계, 주어·지시 및 수식 관계, 과도한 의역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PE 수행 중에는 원문 이해와 의미·정보 보존, 용어 일관성, 최소 수정, 수정 근거 설명을 점검하게 하였으며, 완료 후에는 원문 의미, 정보, 논리 관계, 용어 사용, 한국어 표현의 자연스러움을 결과물 전체에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침은 PE에서 고려할 점검 항목과 수행 절차를 제시한 것으로, 개별 표현의 문제 여부나 구체적인 수정안을 정답 형태로 제공한 것은 아니다. 조별 토론 이후 최종 PE와 수정 근거 분석문은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분석하는 것은 매개가 없는 상태에서의 판단이 아니라, 이러한 교수·학습 지원이 제공된 조건에서 학습자가 최종적으로 언어화하고 자신의 PE에 적용한 판단이다.

3.2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16명의 학부 학습자가 5개 신문 텍스트에 대해 제출한 AI 초벌번역문 PE 활동 자료이다. 학기 초, 수업 산출 자료의 연구 활용에 동의한 수강생은 총 16명이며, 16명 모두 5개 텍스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분석 대상은 총 80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5개 출발 텍스트(source text)를 수업 진행 순서에 따라 T1~T5로 표기하였다. T1~T5는 학습자 수준과 수업 시간을 고려하여 실제 중국어권 온라인 매체에 게재된 기사를 선정하고, 핵심 논지와 문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구성한 수업용 텍스트이다. 이하 본고에서 ‘원문’ 또는 ‘출발 텍스트’는 이들 수업용 텍스트를 가리킨다. 이에 대한 학습자 자료는 S01~S16으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T1-S01은 첫 번째 텍스트에 대한 S01 학습자의 자료를 의미한다. 모든 학습자가 한국어로 제1언어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도착어 유창성에 대한 판단과 중국어 원문의 세부 의미·정보 검토가 PE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주목하였다.

T1~T5는 수업 진행 순서에 따른 자료 번호이다. 다만 텍스트마다 주제와 번역 쟁점이 다르므로, 텍스트별 차이를 학습자의 선형적 향상으로 해석하지 않고 수업 순서와 텍스트 특성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본다.

분석 대상 텍스트의 개요는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대상 텍스트 개요

텍스트	제목	주요 번역 쟁점
T1	早茶文化	아침 차(早茶) 문화, 고유명사·문화어 처리, 음식문화 표현
T2	青年午校	사회 기사문 표현, 취미 강좌, 시간 활용, 자기계발
T3	行李寄存服务, 轻装出行新选择	관광 서비스 표현, 짐 보관 서비스, 관용적 표현
T4	让“隐形家务”不隐形	사회문화 개념어, 제목 반복 구조, 책 제목·저자명
T5	“亿财”还是“亿寿”?	논설적 표현, 제목 대조 구조, 화폐 단위, 결론부 논조

각 학습자 자료는 수업 시간에 PE 과제 제출 항목으로 제시한 AI 초벌 번역 프롬프트, AI 초벌번역문, PE 결과물, AI 번역에 대한 개별 분석 및 수정 근거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이 네 요소를 동일 사례 단위로 대응시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AI 초벌번역문은 동일 모델과 통제 프롬프트로 생성한 실험 자료가 아니라, 학습자가 수업 설명과 예시를 참고해 각자 구성한 프롬프트로 생성한 과제 산출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델이나 프롬프트 유형에 따른 번역 품질 차이를 검증하지 않는다. 프롬프트는 AI 초벌번역문이 생성된 조건이고, AI 초벌번역문은 PE의 수정 대상이며, 분석의 초점은 학습자가 자신이 확보한 AI 번역문을 어떻게 검토하고 수정했는가에 있다.

3.3 분석 절차와 분류 기준

분석은 두 층위에서 진행하였다. 첫째, 전체 80건을 제출물 단위로 코딩하여 각 유형이 한 번 이상 나타난 자료 수를 산출하였다. 같은 자료에서 동일 유형이 여러 번 나타나도 출현값은 1로 처리하고, 서로 다른 유형이

함께 나타나면 복수 유형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유형별 빈도의 합은 80건을 초과할 수 있다.

둘째, 원문 표현과 맥락, AI 초벌번역문, 학습자의 판단 근거, PE 결과가 직접 대응하는 구절 단위 사례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빈도는 80건 전체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본문과 사례표에는 각 유형의 특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를 선별하였다.

유형 분류는 A, B, C 세 범주로 구분된다. 각 범주의 분류 기준은 <표 2> ~ <표 4>와 같다. A범주는 AI 초벌번역문에 대한 문제 인식 유형이다. 이는 AI 초벌번역문의 객관적 오류 유형을 직접 분류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 분석문과 수정 근거에서 드러난 문제 인식 유형을 가리킨다. 즉 학습자가 AI 번역문에서 무엇을 문제로 보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범주이다.

표 2

A범주: AI 초벌번역문 문제 인식 유형

유형		분류 기준
A1	의미 정확성 문제	원문 의미와 다르게 번역된 부분을 지정한 경우
A2	정보 누락·정보 추가	원문 정보가 빠졌거나 원문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본 경우
A3	과잉 의역·의미 확장	자연스럽지만 원문보다 의미가 넓어졌다고 판단한 경우
A4	번역투·한국어 표현의 부자연스러움	지역투, 중국어식 어순, 어색한 표현을 문제로 본 경우
A5	기사문 문체 부적합	신문 기사문으로 보기 어렵거나 구어적·설명문적이라고 본 경우
A6	문화어·고유명사·개념어 처리 문제	지명, 책 제목, 문화 개념어, 사회적 용어 처리 문제를 인식한 경우
A7	제목 번역 문제	제목의 간결성, 반복 구조, 독자 흡인력, 원문 효과 재현을 문제로 본 경우
A8	독자 이해 부족	한국어 독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설명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B범주는 AI 초벌번역문과 학습자의 PE 결과물을 대조하여 확인한 수정 행위 유형이다. 학습자 분석문에 해당 수정의 근거가 명시되었는지와 관계 없이 결과물에서 관찰되는 변경 사항을 코딩하였다. 따라서 A범주는 학습자가 언어화한 문제 인식을, B범주는 실제 수정 행위를 나타낸다.

표 3

B범주: 학습자 PE 수정 유형

유형		분류 기준
B1	어휘 대체	AI 초벌번역문의 특정 단어나 구를 다른 단어나 구로 교체한 경우
B2	의미 복원	AI 초벌번역문에서 드러나지 않거나 약화된 원문 의미를 PE에서 다시 명시한 경우
B3	정보 보완	AI 초벌번역문에 설명, 단위, 배경 정보 등을 추가한 경우
B4	정보 삭제·과잉 조정	AI 초벌번역문에 추가되거나 확장된 표현·정보를 PE에서 삭제하거나 축소한 경우
B5	문장 재구성	문장 분리, 결합, 어순 조정, 호응 정리 등을 수행한 경우
B6	문체 조정	기사체, 평어체, 객관적 문체에 맞게 조정한 경우
B7	제목 재구성	제목을 한국어 기사 제목답게 다시 구성한 경우
B8	문화어·고유명사·개념어 조정	고유명사, 책 제목, 문화어, 개념어를 확인·설명·조정한 경우

C범주는 학습자가 언어화한 평가적 판단과 최종 PE 결과의 대응 관계를 나타낸다. 동일한 원문 구절을 기준으로 원문, AI 초벌번역문, 학습자의 판단 근거, 최종 PE를 대조하고, 수정 결과는 2.3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평가 기준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이 분석은 개별 번역안의 절대적 우열을 판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판단이 실제 결정으로 어떻게 구현되었으며 수정 전후에 각 평가 기준과 관련된 차이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는지를 유형화하기 위한 것이다.

표 4

C범주: 언어화된 평가적 판단과 PE 결과의 관계 유형

유형		분류 기준
C1	문제 인식과 수정 지점의 직접 대응	학습자가 문제로 명시한 지점이 실제 PE에서 변경된 경우
C2	문제 인식의 불완전 반영	문제를 인식했으나 수정을 일부만 반영했거나 분석문에서 설명한 수정과 실제 PE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C3	수정에 따른 원문 의미 표시 방식의 변화	수정 과정에서 원문의 의미 범위·초점·관계가 달라진 경우
C4	검토 후 AI 표현 유지	학습자가 해당 표현을 검토하거나 대안을 비교한 뒤 AI 초벌번역문 표현을 PE에 유지한 경우
C5	PE에서 새로 나타난 정보·설명·관계	PE에서 AI 초벌번역문에 없던 원문 정보 복원, 독자 설명 또는 새로운 해석·관계가 나타난 경우

본 연구의 빈도는 AI 번역문의 오류율이나 학습자의 능력 점수가 아니라, 80건의 제출물 중 해당 문제 인식(A), 수정 행위(B), 판단·결과 관계(C)가 한 번 이상 나타난 자료 수이다.

A, B범주는 수업에서 제시한 PE 원칙과 실제 학습자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양상을 함께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A범주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분석문에서 명시한 문제 인식을 분류하였고, B범주는 AI 초벌번역문과 PE 결과물을 대조하여 실제 수정 행위를 분류하였다.

C범주는 전체 자료가 확보된 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판단·결과 관계를 검토하여 귀납적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자 1인이 유형 기준을 확정하고 전체 80건을 2차로 재검토하여 분류의 일관성을 점검하였다. 학습자가 분석문에 명시하지 않은 판단은 추정하지 않았으며, 단독 코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의성을 줄이기 위해 C1~C5 유형의 분류 기준을 명시하고, 원문-AI 초벌번역문-분석문-PE의 직접 대응이 확인되는 표현만 C유형의 분류 근거로 삼았다. 따라서 C범주는 언어화된 판단과 PE 결과의 관계만을 다룬다.

C범주와 별도로, 분석문에 문제로 언어화되지 않은 채 최종 PE에서 확인되는 원문과의 명시적 의미·정보 차이를 보조적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80건의 원문과 최종 PE를 대조하되, 수치·화폐 단위·고유명사 등의 사실·표기

정보, 원문에 명시된 행위자·정보 출처·수량·시간·논리 관계, 의미 범위와 영향 방향처럼 대응을 비교적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항목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한국어 표현의 자연스러움, 기사문 어휘의 선호, 의역의 허용 범위처럼 복수의 번역 가능성이 있는 항목과 분석문에 이미 해당 문제가 명시된 표현은 제외하였다. 후보 사례는 학습자 분석문과 다시 대조하여 미연급 여부와 하위 유형을 재확인하였다.

4. 학부 학습자의 PE 수행에 나타난 번역 의사결정과 평가적 판단

본 장은 학부 학습자의 PE 수행을 번역 의사결정과 평가적 판단의 두 축에서 분석한다. 4.1에서는 AI 초벌번역문에 대한 문제 인식(A)과 실제 수정 행위(B)를 통해 번역 의사결정의 양상을 살펴보고, 4.2에서는 언어화된 평가적 판단과 PE 결과의 대응 관계(C)를 분석한다. 4.3에서는 언어화된 판단으로 포착되지 않는 최종 PE의 명시적 의미·정보 문제를 보조적으로 분석하여 평가적 판단 분석의 범위와 한계를 검토한다.

4.1 문제 인식과 PE 수정 양상

본 절은 학습자 분석문에 명시된 문제 인식(A)과 AI 초벌번역문-PE 대조에서 확인되는 수정 행위(B)를 분리하여 분석한다. <표 5>와 <표 7>은 80건 전체의 출현 빈도를, 본문과 사례표는 각 유형의 대표 양상을 보여준다.

4.1.1 A유형: AI 초벌번역문 문제 인식 양상

가장 넓게 나타난 문제 인식은 번역투·한국어 표현의 부자연스러움(A4, 80건)과 기사문 문제 부적합(A5, 74건)이었다.¹²⁾ 과잉 의역·의미 확장(A3)도 44건에서 나타나, 학습자들이 유창한 한국어 표현이라도 원문의 의미 범위가 넓어졌는지를 함께 검토했음을 보여준다. 의미 정확성 문제(A1)는 28건,

12) 다만 A4와 A5의 높은 출현은 수정 근거 작성이 과제 요건이었다는 점, 그리고 수업에서 도착어 유창성과 장르 문체를 반복적으로 강조한 점과 함께 해석될 필요가 있다.

독자 이해 부족(A8)은 27건, 문화어·고유명사·개념어 처리 문제(A6)는 26건이었다. 제목 번역 문제(A7)는 제목의 수사적 효과가 두드러진 T4와 T5를 중심으로 20건에서 나타났고, 정보 누락·추가(A2)는 12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5

AI 초벌번역문 문제 인식 유형별 출현 빈도

분류	T1	T2	T3	T4	T5	전체	비율
A1	5	5	8	5	5	28/80	35.0%
A2	4	2	4	2	0	12/80	15.0%
A3	6	4	9	11	14	44/80	55.0%
A4	16	16	16	16	16	80/80	100.0%
A5	10	16	16	16	16	74/80	92.5%
A6	12	1	0	13	0	26/80	32.5%
A7	0	0	2	9	9	20/80	25.0%
A8	9	5	5	6	2	27/80	33.8%

T1-S08은 같은 AI 번역문 안에서 의미 정확성과 도착어 유창성을 서로 구분하여 인식하였다. 원문의 一些点心吃食이 AI 초벌번역문에서 ‘간단한 점심거리’로 제시되자, 학습자는 원문 어디에도 점심을 뜻하는 표현이 없다고 보고 이를 “완전한 오역”으로 판단하였다(A1). 반면 精致多样에 대응한 ‘정교하고 다양한’은 의미 자체의 오류라기보다 음식과 결합했을 때 이해하기 어렵고 기사문에서 딱딱하게 느껴지는 표현으로 보았다(A4·A5). 이 사례는 학습자가 모든 어색한 표현을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고, 원문 의미의 문제와 한국어 표현·장르의 문제를 구별하여 언어화했음을 보여준다.

T4-S13에서는 제목, 어휘 의미, 번역투, 강조 정보가 한 자료 안에서 함께 검토되었다. 학습자는 让“隐形家务”不隐形을 AI가 ‘보이지 않는 집안일을 보이지 않게 하지 말자’로 옮긴 제목이 한국어에서 이중부정처럼 읽힌다고 보았다(A7). 또한 晾干을 ‘다 쓴’으로 처리한 부분은 원문 의미가 다르게 나타난 사례로 판단하였고(A1), 定期的 ‘정기적으로’는 의미는 전달되지만 번역투로 느껴진다고 설명하였다(A4·A5). 아울러 整整의 강조가 초벌번역문

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점과 원문의 한 문장이 두 문장으로 나뉜 점도 함께 검토하였다(A2·A5). 이처럼 문제 인식은 특정 단어의 오류에 한정되지 않고 제목 효과, 의미, 문체, 강조와 문장 구성으로 확장되었다.

이 밖의 사례는 아래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예시 1> AI 초번번역문에 대한 학습자 문제 인식 사례

구분	T1-S15	T2-S02	T3-S13	T5-S03
원문 표현 맥락	二厘馆 값싼 차를 팔던 차집의 명칭	兴趣班, 推出, 具有明显优势 청년 점심학교의 강좌와 장점 소개	行李, 自助行李寄存服务 지하철 짐 보관 서비스의 명칭	生活轨迹, 品味生活 부와 장수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AI 초번번역 문	이리관	흥미반, 출시하다, 뚜렷한 우세	수하물, 셀프/자율 수하물 보관 서비스	삶의 궤적, 삶을 음미하다
학습자의 문제 인식	“명칭만 제시하면 차 값이 저렴하다는 앞 문장과 관계를 한국어 독자가 파악하기 어렵다”	“의미는 통하지만 한국어에서 자연스럽지 않아 어색하게 느껴졌다”	“수하물은 웬지 공향으로 부치는 짐으로 느껴짐.”, “같은 서비스를 ‘셀프’, ‘자율’이라는 다른 명칭으로 번역해 일관성이 없고 독자가 헷갈릴 것 같다”	“의미는 전달되지만 한국어 기사문에서는 문학적이거나 중국어식 직역으로 느껴진다”
A유형	A6 A8	A4 A5	A4 A8	A4 A5

4.1.2 B유형: 학습자 PE 수정 양상

실제 PE에서는 어휘 대체(B1), 문장 재구성(B5), 문체 조정(B6)이 전체 80건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특정 단어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어순, 문장 분라·결합, 연결 방식, 기사문 어조를 함께 조정했음을 뜻한다. 정보 삭제·과잉 조정(B4)은 39건, 의미 복원(B2)은 30건, 정보 보완(B3)은 25건에서 나타났다. 문화어·고유명사·개념어 조정(B8)은 주로 T1과 T4에서 23건, 제목 재구성(B7)은 T4와 T5를 중심으로 22건에서 확인되었다.

표 7
학습자 PE 수정 유형별 출현 빈도

분류	T1	T2	T3	T4	T5	전체	비율
B1	16	16	16	16	16	80/80	100.0%
B2	7	5	8	5	5	30/80	37.5%
B3	8	5	4	5	3	25/80	31.3%
B4	5	5	9	7	13	39/80	48.8%
B5	16	16	16	16	16	80/80	100.0%
B6	16	16	16	16	16	80/80	100.0%
B7	1	0	3	9	9	22/80	27.5%
B8	9	1	1	12	0	23/80	28.8%

T1-S03은 문화어에 대한 정보 보완과 개념어 조정을 보여준다. AI 초벌 번역문은 二厘馆과 茶楼를 각각 ‘이리관(二厘馆)’, ‘차루(茶楼)’로 제시하였다. 학습자는 PE에서 이를 ‘이리관(二厘馆, 값싼 차를 파는 찻집)’, ‘차루(茶楼, 발전된 형태의 찻집)’로 수정하여 각 명칭에 설명을 덧붙였다. 이는 원문의 고유 명칭을 유지하면서 부연 정보를 삽입한 정보 보완(B3)이자 문화어·개념어 조정(B8)에 해당한다. 동시에 반복되는 서술을 줄이고 문장을 압축하여 문장 재구성(B5)과 문체 조정(B6)도 함께 수행하였다.

T3-S03에서는 의미 관계와 기사문 문장 구조가 함께 조정되었다. AI 초벌번역문의 ‘불편한 여행’, ‘여행 경험에 영향을 주는 문제점’은 PE에서 ‘무거운 짐을 동반한 여행’, ‘여행 경험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편 요소’로 바뀌었다. 또한 继首推……之后를 ‘처음으로 짐 배송 서비스를 실시한 후’로 옮긴 문장은 ‘앞서 짐 역내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로 재구성되었고, ‘짐을 둘 수 있다’는 ‘짐을 맡길 수 있다’로 변경되었다. 이 사례에서는 어휘 대체(B1), 원문의 의미 관계를 PE에서 다시 명시하는 의미 복원(B2), 문장 재구성(B5), 기사문 문체 조정(B6)이 한 PE 안에서 결합되어 나타났다. 아래 <표 8>은 기타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표 8

<예시 2> 학습자 PE 수정 사례

구분	T2-S04	T4-S04	T5-S10
원문 표현 맥락	零散时间, 充分利用 평일 점심시간의 짧고 분산된 시간을 활용	让“隐形家务”不隐形 비가시적 집안일을 드러내자는 제목	财富的力量...影响周围人 的生活水平 부의 영향을 설명
AI 초번역역 문	짧고 단편적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이지 않는 가사’를 보이지 않게 두지 말자	부의 힘은 개인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의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E 결과	자투리 시간을 적극 활용해	보이지 않던 집안일, 이제는 드러낼 때다	부는 개인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든다. 나아가 주변 사람들의 삶의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정 양상	시간 표현과 서술어를 교체하고 한국어 기사문에 맞게 표현을 조정함	반복되는 부정 구조를 없애고 한국어 기사 제목의 형식으로 재구성함	장문을 두 문장으로 분리하고 연결 표현을 조정하여 문장 구조와 기사문 호흡을 재구성함
B유형	B1 B5 B6	B5 B6 B7	B1 B5 B6

4.1.3 소결

A유형과 B유형의 분포를 함께 보면, 학습자의 문제 인식은 도착어 유창성과 기사문 문체에 집중되었고, 실제 PE에서도 어휘 대체, 문장 재구성, 문체 조정이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나의 문제 인식이 복수의 수정으로 이어지거나 하나의 수정이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등 A와 B는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제 인식과 수정 행위뿐 아니라, 언어화된 평가적 판단과 최종 결과의 관계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4.2 언어화된 평가적 판단과 포스트에디팅 결과의 관계

앞 절에서는 학습자가 무엇을 문제로 인식했고 실제 PE에서 어떤 수정

행위를 수행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문제 인식이 실제 수정으로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수정 결과가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본 절은 원문, AI 초번번역문, 학습자 분석문, 최종 PE를 동일 구절 단위로 대조하여, 언어화된 평가적 판단이 수정·유지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었고 그 결과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한다.

<표 9>는 80건 전체의 C유형 출현 빈도이다. 본문과 사례표에서는 각 관계 유형의 대표 양상을 보여준다.

표 9

언어화된 평가적 판단과 PE 결과의 관계 유형별 출현 빈도

분류	T1	T2	T3	T4	T5	전체	비율
C1	16	16	16	16	16	80/80	100.0%
C2	2	3	3	1	4	13/80	16.3%
C3	11	15	7	12	13	58/80	72.5%
C4	4	2	1	2	1	10/80	12.5%
C5	3	6	4	5	6	24/80	30.0%

C1은 전체 80건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모든 제출물에서 언어화된 문제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실제 수정 지점과 직접 대응했음을 뜻한다. 다만 수정 근거 작성이 과제 요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핵심은 C1 자체보다 다른 관계 유형과의 공출현에 있다. C3는 58건(72.5%)에서 나타나 실제 수정 과정에서 원문의 의미 범위·초점·관계가 달리 표시되는 양상이 넓게 확인되었다. C5는 24건(30.0%), C2는 13건(16.3%), C4는 10건(12.5%)이었다. 이하에서는 각 유형의 성격과 교육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4.2.1 문제 인식과 수정 지점의 직접 대응(C1)

C1은 학습자가 분석문에서 문제로 명시한 지점이 실제 PE에서 변경된 경우이다. 특정한 문제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문화어, 프로그램 명칭, 제목, 어휘 결합, 문장 구조, 기사문 문제, 화폐 단위 등 여러 층위에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T3-S02는 원문 “负重旅游”是影响旅游体验的槽点에서 AI가

负重旅游를 ‘부담 여행’으로, 槽点을 포함한 구절을 ‘여행 경험에 부담을 주는 요소’로 옮긴 점을 문제로 들었다. 학습자는 ‘부담 여행’만으로는 짐을 들고 여러 장소를 이동하는 문맥적 상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짐 부담 여행’으로 바꾸었고, ‘부담을 주는 요소’는 ‘여행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조정하였다. 이 사례에서는 학습자가 지적한 두 표현과 PE의 변경 위치가 직접 대응한다.

또 다른 사례인 T1-S12에서는 一些点心吃食가 AI 초벌번역문에서 ‘간단한 점심(点心)’으로 처리되었다. 학습자는 点心을 ‘점심’으로 옮기면 뒤의 ‘아침 식사를 해결하다’라는 문맥과 충돌한다고 보고, 이를 ‘간단한 다과와 요깃거리’로 수정하였다. 학습자의 문제 인식과 변경 지점이 동일 어휘에서 직접 대응한 사례이다.

C1은 학습자가 언어화한 수정 이유와 실제 수정 행위가 직접 연결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C1은 판단이 실행되었다는 관계를 뜻할 뿐, 수정 결과가 모든 평가 기준을 충족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과의 의미·정보·문체상 양상은 C2·C3·C5와 함께 해석해야 한다. 기타 사례는 아래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

<예시 3> 문제 인식과 수정 지점의 직접 대응 사례

구분	T2-S02	T4-S13	T5-S09
원문 표현 맥락	兴趣班 점심시간에 운영하는 성인 대상 취미 과정	晾干 세척한 밀폐용기를 말린 상태	信息爆炸 정보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대적 상황
AI 초벌번 역문	흥미반	다 쓴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
학습자 의 판단	“‘흥미반’은 한국어 프로그램 명칭으로 어색하다”	“원문의 한자를 다시 확인해 보니 ‘다 쓴’이 아니라 ‘말려서 마른’의 의미이다”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는 기사문 도입부에서 다소 직역적으로 느껴진다”
PE 결과	취미 강좌	다 마른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관계 분석	문제로 명시한 프로그램 명칭이 동일 지점에서 직접 수정됨	원문 의미에 대한 재확인이 동일 어휘의 의미 수정으로 직접 이어짐	문제로 인식한 도입 표현이 동일 구절에서 직접 조정됨
----------	---------------------------------------	---	-------------------------------------

4.2.2 문제 인식의 불완전 반영(C2)

C2는 문제 인식은 명시되었지만 수정이 일부 요소에만 반영되거나, 분석문에서 제시한 수정 방향과 실제 PE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 경우이다. T4-S06은 说不出名字的 AI 번역 ‘이름이 없다’를 검토하면서, 일상에서 수행되지만 분명한 명칭을 붙이기 어려운 집안일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PE에서는 ‘이름이 모호하다’로 바꾸었다. AI 표현은 변경되었지만, 원문의 ‘이름을 말하거나 붙이기 어렵다’는 행위가 PE에서는 이름 자체의 속성인 ‘모호함’으로 표시되었다.

T2-S06은 为年轻人带来了全新的生活选择을 AI가 ‘젊은이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의 선택지를 선사하고 있다’로 옮긴 문장을 검토하였다. 학습자는 ‘선사하다’가 앞의 명사구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고 ‘젊은층에게 새로운 생활 방식의 선택지를 보여주고 있다’로 수정하였다. 문제로 인식한 술어는 바뀌었지만 ‘생활 방식의 선택지’라는 명사 연쇄와 전체 서술 틀은 유지되었다. 이처럼 C2의 분석 초점은 문제 인식의 존재가 아니라, 그 판단이 최종 표현의 어느 범위까지 구현되었는가에 있다.

또한 T5-S12는 AI가 一亿元을 ‘1억 원’으로 처리한 문제를 지적하고 제목과 도입부를 ‘1억 위안’으로 수정했지만, 다음 문단에는 ‘1억 원’이 남아 있었다. 이는 동일한 판단 기준이 텍스트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은 사례이다. T3-S05와 T5-S14에서는 분석문에서 설명한 수정안과 실제 PE 문구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이 두 양상은 판단 기준을 형성하는 것과 그 판단을 최종 결과물 전체에 구현하고 재확인하는 것이 별개의 단계임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분석문에 문제 자체가 언어화되지 않은 채 최종 PE에서 확인된 의미·정보 문제는 4.3에서 별도로 다룬다.

아래 <표 11>은 C2의 다른 사례들이다.

표 11

<예시 4> 문제 인식의 불완전 반영 사례

구분	T1-S05	T3-S05	T5-S16
원문 표현 맥락	精致多样 차와 다과의 세련됨과 다양성을 함께 묘사	显得尤为实用 환승·체크인 전후에 서비스의 유용성이 두드러짐	更从容地品味生活 장수를 통해 삶을 보다 여윌롭게 향유함
AI 초번역문 문	정교하고 다양한	더욱 실용적으로 보인다	삶을 보다 여윌롭게 음미하며
학습자의 판단	“정교하다”는 기술적인 느낌이다”	“더욱 실용적으로 보인다”는 직역투 같다”	“음미하다”는 과한 것 같다”
PE 결과	다채롭고 다양한	더욱 실용적으로 보인다	더 여윌롭게 삶을 여윌롭게 즐기며
관계 분석	‘정교하다’는 교체되었으나, 精致에 대응하는 세련됨의 의미가 약화되고 ‘다채롭다’와 ‘다양하다’에 유사한 의미가 중첩됨	분석문에는 수정 판단이 명시되었으나 최종 PE에는 AI 표현이 그대로 남아 판단이 실제 결과에 반영되지 않음	핵심 동사 ‘음미하다’는 ‘즐기다’로 교체되었으나 ‘여윌롭게’가 중복되어 표현 조정이 일부에 그침

4.2.3 수정에 따른 원문 의미 표시 방식의 변화(C3)

C3는 학습자가 자연스러움, 기사문 문체, 독자 이해를 고려해 실제로 표현을 바꾸었으나, 원문과 AI 초번역문을 대조했을 때 의미 범위·초점·관계가 다르게 표시된 경우이다. T2-S06에서 照顾家庭은 AI 초번역문에서 ‘가정을 돌봐야 하는’으로 옮겨졌고, 학습자는 이를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으로 수정하였다. 학생은 생활 맥락에서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선택하려 했지만, PE에서는 돌봄의 책임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활동으로 재표현되었다.

T4-S15에서 极大地消耗人的耐心은 AI 초번역문에서 ‘사람의 인내심을 크게 소모시킨다’로 번역되었는데, 학습자는 이를 부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인식하고 PE에서는 ‘상당한 피로를 유발한다’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도착어 유창성과 기사문 문체를 높이려는 수정이 원문의 의미 보존과 자동으로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뀌더라도 의미 범위, 참여자 관계, 논리적 초점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밖의 사례는 아래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2

<예시 5> 수정에 따른 원문 의미 표시 방식의 변화 사례

구분	T1-S14	T5-S09
원문 표현 맥락	茶馆会提供简单的茶水服务 다관이 노동자에게 간단한 차 서비스를 제공함	周围人的生活水平 부가 주변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영향을 줌
AI 초번역문	현지의 다관에서는 간단한 차를 제공했다	주변 사람들의 생활 수준
학습자의 판단	“상업 행위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	“‘생활 수준’이라는 말이 딱딱하게 느껴진다”
PE 결과	간단한 차를 팔았다	주변 사람들의 삶
관계 분석	원문의 포괄적 어휘가 구체적 행위 어휘로 표시됨	생활의 특정 측면이 삶 전반으로 확대되어 표시됨

4.2.4 검토 후 AI 표현 유지(C4)

C4는 학습자가 수정하지 않은 모든 표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분석문에서 해당 표현을 직접 언급하고, 대안을 비교하거나 유지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만 부여하였다. T5-S11은 真正的答案在于平衡을 AI가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로 옮긴 표현을 검토하였다. 학습자는 직역형인 ‘진정한 답은 균형에 있다’와 비교한 뒤, AI 표현이 기사문의 결론으로 자연스럽고 원문의 의미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사례는 평가적 판단이 반드시 수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T3-S11에서는 辗转于가 AI 초번역문에서 ‘오가다’로 처리되었다. 학습자는 자신이 생각한 ‘이리저리 전전하다’와 비교한 뒤, AI의 ‘오가다’가 여러 장소를 거쳐 이동하는 상황을 한국어 기사문에서 간결하게 전달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C4의 비수정은 평가적 판단이 AI 표현의 선택적 수용이라는 번역 의사결정으로 실현된 결과이다.

아래 <표 13>은 기타 사례이다.

표 13

<예시 6> 검토 후 AI 표현 유지 사례

구분	T1-S09	T2-S13	T4-S09
원문 표현 맥락	吃早茶 아침에 차와 다과를 즐기는 문화적 행위	技能的提升 수업을 통한 기술·기능의 향상	冲上了微博热搜 웨이보 인기 검색어에 빠르게 오름
AI 초번역문	아침 차를 즐기는 것	역량 향상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학습자의 판단	“‘먹다’보다 ‘즐기다’가 문화적 습관을 드러내는 것 같다”	“‘기술 향상’보다 문맥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한국어 기사문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다”
PE 결과	아침 차를 즐기는 것	역량 향상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관계 분석	‘먹다·즐기다’ 표현 차이 검토 후 AI번역 유지 결정함	사전적 대응과 문맥 적합성을 비교한 뒤 유지 결정함	인터넷 기사 표현을 검토한 뒤 AI 번역을 채택함

4.2.5 PE에서 새로 나타난 정보·설명·관계(C5)

C5는 PE에 AI 초번역문에는 없던 내용이 새로 나타난 경우이며, 세 하위 양상으로 나뉜다. 첫째, AI 초번역문에서 누락된 원문 정보를 복원한 경우이다. T3-S14의 AI 초번역문에는 专注于享受旅途的美好에 대응하는 내용이 없었고, 학습자는 이 누락을 확인하여 PE에 ‘여행의 즐거움을 누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를 추가하였다.

둘째, 도착어 독자의 이해를 위한 설명이 추가된 경우이다. T1-S03은 AI 초번역문에서 ‘이리관(二厘馆)’과 ‘차루(茶楼)’로 제시된 문화어에 각각 ‘값싼 차를 파는 찻집’, ‘발전된 형태의 찻집’이라는 설명을 덧붙였고, T4-S15는 ‘웨이보(微博)’를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웨이보(微博)’로 수정하였다. 고유 명칭만으로는 한국어 독자가 개념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 학습자가 부연 설명을 추가한 경우이다.

셋째, 원문의 논지를 구체화하거나 확장한 해석이다. T5-S05의 ‘지속 가능한 행복’, T5-S16의 ‘삶의 가치를 높이다’, T5-S07의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가 이에 해당한다.

C5의 분석 초점은 추가된 내용을 일괄적으로 문제로 판정하는 데 있지 않다. 새로 나타난 내용이 원문 정보의 복원인지, 독자 지향적 설명인지, 원문의 논지를 확장한 해석인지 구분하는 데 있다. 아래 <표 14>는 기타 사례들이다.

표 14

<예시 7> PE에서 새로 나타난 정보·설명·관계 사례

구분	T5-S07	T2-S10
원문 표현 맥락	体验更为丰富的人生 장수를 선택하면 보다 풍부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내용	无论是身心的轻松还是技能的提升, 都 能为日常生活和工作带来积极的影响 심신의 휴식과 기술 향상이 각각 일상생활과 업무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병렬 관계
AI 초번역문	더욱 풍부한 인생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심신의 휴식은 물론 기술 향상까지 가능해 일상생활과 업무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학습자의 판단	“장수를 선택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하려면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기술’이 문맥에서 너무 어색하다”
PE 결과	다양한 경험을 쌓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풍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심신의 휴식은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되어 일상생활과 업무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관계 분석	원문의 포괄적인 ‘풍부한 인생 경험’이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구체적인 경험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됨	원문과 AI 초번역문에서는 두 요소가 병렬 관계이지만, PE에서는 심신의 휴식이 역량 향상에 도움을 주는 인과 관계가 새로 형성됨

4.2.6 소결

4.2의 핵심 결과는 C3의 광범위한 출현이다. C1이 전체 80건에서 확인된

가운데, C3 또한 58건(72.5%)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C3가 나타난 58건에서는 한 제출물 안에 C1과 C3가 함께 확인되었다. 이러한 공출현은 같은 구절에 두 유형이 동시에 부여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한 제출물 안에서 문제 인식과 수정 지점이 직접 대응한 사례와 수정 후 의미 표시 방식이 달라진 사례가 함께 확인되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적 판단이 수정 결정으로 실행되는 것과 수정 결과를 원문 의미 보존의 관점에서 재검점하는 것이 구별되는 단계임을 보여준다. C2는 판단 적용의 불완전성을, C4는 검토 후 유지 결정을, C5는 새 정보·설명·관계의 출현을 보여주었다.

A범주의 문제 인식과 B범주의 수정 행위가 C범주의 판단-결과 관계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볼 때 이러한 결과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동일 구절에 대한 분석의 연결 구조는 ‘문제 인식(A) → 수정 행위(B) → 언어화된 판단과 PE 결과의 관계(C)’로 정리할 수 있으며, 대표 사례는 <표 15>와 같다.

표 15

<예시 8> 문제 인식-수정 행위-판단-결과 관계의 연결 사례

구분	T1-S12	T5-S12	T4-S15
원문 표현	精致多样的茶点和茶水	一亿元	极大地消耗人的耐心
AI 초별번역 문	한층 정교하고 다양한 차와 다과	1억 원	사람의 인내심도 크게 소모시킨다
학습자 판단	‘정교하다’는 음식에 부자연스러움	화폐 단위 오류	한국어가 부자연스러움
PE 결과	보다 정갈하고 다양한 차와 다과	1억 위안(한화 약 200억 원)/일부 ‘1억 원’ 잔존	상당한 피로를 유발한다
A 문제 인식	A4 번역투·한국어 표현의 부자연스러움	A1 의미·정보 정확성 문제	A4 번역투·한국어 표현의 부자연스러움
B 수정 행위	B1 어휘·표현 대체	B2 의미 복원 + B3 정보 보완	B1 어휘·표현 대체
C 판단-결과 관계	C1 직접 대응	C2 불완전 반영	C3 의미 표시 변화

위의 <표 15>에서 보듯 학습자가 문제를 명시하고 실제 수정한 경우에도 그 결과는 동일하지 않았다. T1-S12에서는 명시된 문제와 수정 지점이 직접 대응한 반면(C1), T5-S12에서는 동일한 판단이 텍스트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다(C2). 또한 T4-S15에서는 한국어 표현을 자연스럽게 조정하려는 판단이 실제 수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원문의 의미 표시 방식도 함께 달라졌다(C3). 이는 문제 인식(A)과 수정 행위(B)의 확인만으로 수정 결과의 양상을 설명하기 어렵고, 판단과 실제 결과의 관계를 별도로 대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4.3 분석문에 언어화되지 않은 최종 PE의 의미·정보 문제

C범주는 학습자가 분석문에 언어화한 판단만을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분석문에 언급되지 않은 최종 PE의 문제는 포착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사실이 PE 전체의 의미·정보 문제를 모두 점검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에 본 절은 C범주의 경계를 보완하기 위해, 분석문에 언어화되지 않은 채 최종 PE에서 확인되는 원문과의 명시적 의미·정보 차이를 별도로 검토하였다. AI 초벌번역문의 문제가 최종 PE에 남은 경우와 PE 과정에서 새로 생긴 차이를 모두 포함하며, 이는 학습자의 언어화된 판단을 전제로 하는 C3-C5와 구별된다.

전체 80건을 대조한 결과, 미언급 의미·정보 문제는 18건의 제출물에서 확인되었으며, 원문과 PE의 대응 부분을 기준으로 총 24개 지점에 나타났다. 제출물 기준 22.5%이지만, 이는 PE 전체의 오류율이나 학습자의 미인식이 아니라 논쟁 가능성이 낮은 사례만 보수적으로 집계한 최소값이다. 한 제출물에 여러 문제가 함께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하위 유형별 관련 제출물 수의 합은 18건을 초과한다. 하위 유형별 분포는 <표 16>과 같다.

표 16

분석문에 언어화되지 않은 의미·정보 문제의 보조 분석 결과

구분	문제 지점 수	관련 제출물 수	주요 양상
사실·표기 정보	11	10	화폐 단위, 수량 범위, 시대명·문화어 표기
원문 정보·관계	7	6	행위자와 정보 출처 표시의 변화, 정보 누락·추가
의미 범위·방향	6	5	의미 범위의 확대, 영향 방향의 한정

가장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표기 정보 문제는 T5의 화폐 단위였다. 원문의 一亿元은 중국 화폐인 ‘1억 위안’을 뜻하지만, T5-S03·S05·S07·S08·S09·S10·S16의 PE에는 ‘1억 원’이 남았다. 이들 분석문은 제목의 간결성, 번역투, 논설적 문체, 삶과 행복에 관한 표현을 다루었지만 화폐 단위는 문제로 언어화하지 않았다. 이는 T5-S12처럼 화폐 단위 문제를 인식했으나 텍스트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한 C2 사례와 구별된다. 전자는 판단이 분석문에 나타나지 않은 미연급 문제이고, 후자는 판단이 명시되었으나 적용 범위가 불완전한 경우이다.

원문에 없던 정보 출처가 PE에서 새로 나타난 사례도 확인되었다. T2-S11의 PE는 수업 시간이 주는 효과를 ‘수강생들은 하루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충분하다고 평가한다’로 서술하였다. 그러나 원문은 即便是短短的45分钟, 也足以带来一整天的愉悦感으로, 짧은 45분의 수업이 하루 종일 만족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기술할 뿐, 수강생의 평가나 발화를 제시하지 않는다. T2-S16에서도 원문의 일반적 효과 서술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형 표현으로 바뀌었다. 두 자료 모두 분석문에서는 이러한 정보 출처의 변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PE 과정에서 조사 결과형 기사 표현을 사용하면서, 원문에는 없던 정보의 출처나 근거가 새로 부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 밖의 사실·정보·의미 범위 문제 사례는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예시 9> 분석문에 언어화되지 않은 의미·정보 문제의 대표 사례

	T3-S15	T4-S02	T5-S05
원문 표현	游客可以...然后轻松地游览 各个景点/ 现在, “轻松旅行”已经成为 一种新的发展方向	成千上万条留言/ 必须有人去做	周围人的生活水平/ 技术的发展
PE 표현	누락/ 관련 서비스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의견/ 여러 가사노동	주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 문명의 발전
보조 분석	원문 정보의 누락과 미래 전망의 추가가 함께 나타남	수량 정보와 ‘누군가 반드시 수행한다’는 행위자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대상의 범위와 영향 방향이 확대되고 ‘기술’이 ‘문명’으로 바뀜

이러한 사례들은 교육적으로 볼 때 수정 근거 작성과 전체 텍스트 재검토를 분리한 이중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첫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발견한 문제와 수정 이유를 언어화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존 분석문과 별개로 수치·단위·고유명사·수량, 행위자와 정보 출처, 의미 범위와 영향 방향을 원문과 다시 대조한다. 이러한 재검토 절차는 최초 판단에만 치중하는 것을 줄이고 최종 PE의 일관성과 정보 정확성을 점검하게 한다. 특히 의미·정보 항목들은 수업 PE 가이드라인의 단계별 점검 항목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가 분석문에 언어화되지 않은 채 최종 PE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은,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텍스트 전체에 대한 일관된 재점검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음을 보여준다.

다만 분석문에 언급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학습자의 실제 인지 상태를 모두 추론할 수는 없고, 자연스러움이나 문제처럼 번역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항목은 분석 범위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24개의 개별 문제 지점은 보수적으로 확인된 미언급 문제의 최소 범위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AI 기반 중한번역 수업에서 산출된 학부 학습자의 AI 초벌번역문 PE 자료를 대상으로, 학습자들이 AI 번역문의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실제로 어떻게 수정하며, 그 번역 의사결정과 실제 PE 결과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들 자료는 조별 토론과 교수자 PE 가이드라인이 제공된 수업 조건에서 산출된 것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지원 조건 아래 나타난 학습자의 판단과 수정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AI 초벌번역문에서 번역투와 한국어의 부자연스러움, 기사문 문체 부적합을 가장 넓게 문제로 인식하였다. 실제 PE에서는 어휘 대체, 문장 재구성, 문체 조정이 모든 자료에서 확인되었으며, 텍스트 특성에 따라 의미 복원, 정보 보완, 추가·확장 표현의 삭제와 축소, 문화어·고유명사·개념어 조정, 제목 재구성이 나타났다. 문제로 지적한 표현과 PE 변경 지점이 직접 대응하는 C1은 80건 모두에서 확인되었고, C1과 의미 표시 방식의 변화(C3)는 58건(72.5%)에서 같은 제출물에 공출현하였다. 이는 문제 인식의 실행과 수정 결과의 의미 관계 유지가 서로 다른 단계임을 보여준다. 또한 문제 인식이 일부에만 반영되거나 분석문에 제시한 수정과 실제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고, 대안을 검토한 뒤 AI 표현을 유지한 C4도 10건(12.5%)에서 확인되었다. 원문 정보의 복원, 독자 설명, 해석적 재구성처럼 AI 초벌번역문에 없던 내용이 PE에 새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PE 수행에서 문제 인식, 수정·유지 결정의 실행, 수정 결과의 재검토가 서로 구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PE 교육은 결과물만 평가하기보다 문제 인식, 수정 근거, 실제 PE 결과를 함께 확인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보조 분석에서는 분석문에 언어화되지 않은 명시적 의미·정보 문제가 18건의 제출물(22.5%)에서 최소 24개의 개별 문제 지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언어화된 판단을 중심으로 한 C범주만으로는 최종 PE의 모든 의미·정보 문제를 포착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교육적으로는 네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유창한 AI 번역문도 원문과 대조하여 의미·정보 대응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신문 텍스트의 장르 문

체와 독자 수용성을 판단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화폐 단위, 지명, 고유 명사, 책 제목, 문화어를 확인하는 사실·문화 정보 검증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넷째, 수정 근거를 작성한 뒤 별도의 점검 체크리스트로 최종 PE 전체를 재검토하는 이중 점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AI 기반 중한번역 수업에서 산출된 실제 학습자 과제 자료를 바탕으로, AI 번역문 PE 수행을 번역 의사결정과 평가적 판단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문제 인식(A), 수정 행위(B), 판단-결과 관계(C), 미언급 의미·정보 문제(4.3)를 구분하여 분석했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수정의 실행, 검토 후 유지, 의미 표시 방식의 변화, 최종본의 미언급 문제를 하나의 분석 체계 안에서 확인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교수자 매개가 제공된 수업에서 산출된 16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습자가 분석문에 언어화한 판단만을 확인했기 때문에 평가적 판단의 내적 과정 전체나 PE 능력의 향상을 직접 검증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고 구술, 자극회상 면담, 수정 이력 같은 과정 자료를 결합하여 학습자의 실제 문제 인식과 수정 결정 과정을 더 정밀하게 규명하고, 복수 코더의 교차 검증과 함께 분석 대상, 텍스트 장르, AI 초번역 조건을 확대·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중한번역 수업에 적용 가능한 PE 훈련 모형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수정. (2025). AI시대 학부번역수업의 기계번역 적용에 관한 연구 — 중한 번역수업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6(1), 49-73.
- 김민영. (2026). AI 번역 도구 시대의 문법번역식 한국어 교수법 재고: 번역 판단 주체성(translational agency)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37(2), 61-88.
- 김영인. (2026a). AI 기반 학부 중한번역 수업의 교수자 매개형 단계적 활동 설계와 학습자 인식 사례 연구. *통번역학연구*, 30(3), 51-78.
- 김영인. (2026b). 학부 중국어 교육에서 AI 활용 번역의 교육적 의미 — 학습

- 자 직접 번역 활동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102, 179-210.
- 김자경. (2020).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에 나타난 오류 고찰: AI 학습용 한영 번역 말뭉치를 대상으로. *통번역학연구*, 24(4), 35-62.
- 김혜림. (2024). 중한 기계번역 오류변화와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에 대한 고찰: 2021년-2023년 학부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8(2), 1-26.
- 지윤주, 이상빈, 이선우. (2023). 학부번역전공자의 챗GPT 관련 인식과 챗GPT 번역 및 포스트에디팅 실험 연구. *통번역학연구*, 27(3), 203-226.
- 최진실. (2024). ChatGPT 외 AI 기계번역에 대한 사용자 인식과 포스트에디팅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22(1), 67-88.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7). *ISO 18587:2017 Translation services — Post-editing of machine translation output — Requirements*. ISO.
- Koponen, M. (2016). Is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worth the effort? A survey of research into post-editing and effort.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25, 131-148.
- Lommel, A., Uszkoreit, H., & Burchardt, A. (2014). Multidimensional Quality Metrics (MQM): A framework for declaring and describing translation quality metrics. *Tradumàtica: Tecnologies de la Traducció*, 12, 455-463.
- MQM Council. (n.d.). *The MQM error typology*.
<https://themqm.org/error-types-2/typology/>
- Nord, C. (2018).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ist approaches explained* (2nd ed.). Routledge. (Original work published 1997)
- O'Brien, S. (2021). Post-editing. In Y. Gambier & L. van Doorsla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 5, pp. 177-183). John Benjamins.
- PACTE. (2005). Investigating translation competenc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Meta*, 50(2), 609-619.
- Tai, J., Ajjawi, R., Boud, D., Dawson, P., & Panadero, E. (2018). Developing evaluative judgement: Enabling students to make decisions about the quality of work. *Higher Education*, 76(3), 467-481.

- Wilss, W. (1994). A framework for decision-making in translation. *Target*, 6(2), 131-150.
- Zou, L., Carl, M., Yamada, M., & Mizowaki, T. (2022). Proficiency and external aides: Impact of translation brief and search conditions on post-editing quality. *Proceedings of the 15th Bienni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Machine Translation in the Americas (Workshop 1: Empirical Translation Process Research)* (pp. 60-74).

<AI 도구 활용 보고>

OpenAI. (2026). ChatGPT (GPT-5.6 Sol, 2026.07.09.), [대형언어모델(LLM)], <https://chatgpt.com/>

본 논문은 작성 및 수정 과정에서 문장 표현 점검과 분석 범주 명칭 정리를 위해 AI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AI 도구의 제안은 연구자의 검토를 거쳐 최종 원고에 반영함.

Undergraduate learners' decision-making and evaluative judgement in AI-assisted Chinese-to-Korean translation: Alignment between articulated judgements and post-edited outcomes

Young-In Kim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undergraduate learners' translation decision-making and evaluative judgement in an AI-assisted Chinese-to-Korean translation class, focusing on the alignment between their articulated judgements and post-edited outcomes. The dataset consists of 80 submissions from 16 learners in response to five Chinese news texts. Each submission included an AI prompt, an AI-generated draft, a post-edited text, and a written rationale for the revisions. The analysis combined occurrence-based coding with qualitative examination of individual cases. Learners most frequently identified translationese, unnatural Korean expressions, and inappropriate journalistic style. Lexical replacement, sentence restructuring, and stylistic adjustment occurred in all 80 submissions. Comparison between the written rationales and post-edited texts revealed five patterns: direct correspondence, incomplete implementation of stated decisions, shifts in meaning representation, deliberate retention of AI expressions, and added information, explanations, or interpretive relations. Direct correspondence occurred in all 80 submissions, while 58 (72.5%) also showed shifts in meaning representation. A supplementary comparison of the source and final post-edited texts identified at least 24 discrepancies in meaning or information in 18 submissions (22.5%) that were not mentioned in the rational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st-editing instruction should distinguish problem identification, the implementation of revision or retention decisions, and final-text re-evaluation, while directing learners' attention to what their revisions preserve, alter, or introduce in relation to the source text.

Keywords: AI translation; post-editing; Chinese-to-Korean translation; translation decision-making; evaluative judgement

키워드: AI 번역, 포스트에디팅, 중한번역, 번역 의사결정, 평가적 판단

김영인(<https://orcid.org/0009-0009-8235-6636>)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강사

innistory@ynu.ac.kr

논문 투고일: 2026년 8월 13일

1차 심사 완료일: 2026년 9월 1일

2차 심사 완료일: 2026년 9월 8일

게재 확정일: 2026년 9월 15일